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0호 [무게 제25058호] 주제 104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각하께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계기에 즈음하여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친선적인 두 나라의 리익에 부합되게 더욱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원수각하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5년 10월 4일 디마스끄

## 조선로동당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별가리조선친선협회에서 불매편을 발행하였다.  
불매편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과 《조선로동당의 창건경위》, 《당창건》, 《조선로동당의 령도》라는 소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은 나라가 창건후 지난 70년간 조선로동당은 실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지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헌명하게 이끄시어 해방직후 당창건위업을 실현하는데 대하여 상세히 진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라고 하면서 불매편은 새 조국건설과 전후 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이끈 우리 당의 업적을 자료적으로 소개하였다.  
불매편은 우리 공화국을 앞살라려는 미제의 책동이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있는 사실을 까밝히고 국방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제국주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과 공화국영웅 안동수 유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6일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박철 레사코 브로치야연방대사관 참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 경모의 정 표시, 외국 손님들, 국제민주녀성련맹과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이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6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축하단원들은 조국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또한 이날 배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찾아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손님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6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연합회 대표단과 주조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영성을 기원합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연합회 대표단과 주조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합니다》, 《조선중앙통신》

#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70년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한 강령적문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받아안은 각계의 반향

## 우리 혁명의 전도는 양양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는 김일성, 김정일동지들의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을 표시한 자랑찬 승리의 역사이다.》  
은 나라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앞두고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는 때에 발표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 우리 항일혁명투쟁의 감정은 흥연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불멸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혁명적당 건설의 전진정세를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필승불패성에 대하여 그렇듯 진정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시켰던 70년 경이 없었다.  
70년전 우리 당이 창건되던 그때로부터 자기의 폐지에

## 위대한 당의 백승의 위력을 떨치며 최후승리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은 나라 당원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위업 수행의 산모범으로 되는 우리 당건설경과와 우리 당이 70년 이상 이룩한 위대한 업적,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의 자자구구를 새길수록 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기 위하여는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만방에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이 가슴가득 차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역사적사명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로작은 자주시대 혁명적당 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고 백과전서이며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로작에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이 당원들의 근본지침으로 삼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각급 당조직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념 로작을 당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위대한 보검으로 활용하고 로작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수령의 당이며 당원들이 기본은 수령의 사상과

##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향상에 선차적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해방을 마칠것 누리며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받아안은 우리 도인민위원회원들의 가슴은 지금 한없는 격정으로 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의 령도밑에 배두에서 개척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도안의 인민생활을

## 영원히 당을 따라 곧바로, 오직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의 역사에는 청년들의 영웅으로, 당의 최후대, 의측부대로 귀운 자랑찬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훌륭한 군대와 인민,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이 지난 70년력사에 오직 승리만을 세우는 비결이 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일찌기 청년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청년운동은 주체혁명위업의 한걸음 따라 언제나 곧바로 걸어왔다.  
그것에서 당이 부르는 곳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이고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피와 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미풍신구자들의 대부대가 자라나 세상에 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깊이 체득하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

를 비롯한 신념의 노래, 투쟁의 찬가를 높이 부르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당을 따라 오직 곧바로 나아가겠다.  
청년들의 발걸음속도이자 강철의 레일을 앞당기는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이다.  
우리 당의 믿음의 구조, 투쟁의 구호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타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를 심장깊이 쏘아박고 강성국가건설의 대고조전투쟁마다에서 청년전위대의 기성과 본래를 남김없이 파시해나가는 청년영웅으로 준비해나갔다.  
배두의 선군혁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는 한 조선청년운동의 앞길은 언제나 밝고 휘황찬란하다.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답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발을 펼칠 휘날리며 최후승리의 명마를 향하여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신한번 굳게 결의한다.  
백두산영웅청년블러드대 대장 김상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다



↑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제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4월  
←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도당선전비서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2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10월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2월



함경북도당위원회 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5월



제1차 전국예술인 학습경연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2(1973)년 11월



새로 편찬한 김일성동지혁명력사도록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8월



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경축 평양시군중시위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9(1980)년 10월



당창건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0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 참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9월



# 정론

# 위대한 한우리인민

## 조선로동당창건 70돛에 참가이 글을 드린다

이날은 영광과 행복의 절정, 인민이 기다리고 맞이한 우리의 항도자, 고마운 어머니당의 명절이다.

멀리도 흘러 어느덧 70년이다.

그대 위대한 조선로동당아여, 일흔번째의 승리의 포성이 울리는 이 시각 그대를 우러러 가장 성스럽고 긍지높이 부르는 10월의 찬가는 정녕 무엇인가.

조선로동당의 70년 역사가 언제나 《승리》라는 두 글자만을 아로새겨주어 온 것은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을 하늘처럼 믿고 진심으로 받들어왔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있어 영원한 지지자, 조연자, 방조자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우리 인민!

역적의 반석위에 당을 받들고 철벽의 성새로 예리한 우리 인민의 모습이어달라 조선로동당의 가장 뚜렷한 영상이고 불변의 본태이며 영광스러운 70년의 가장 힘있는 총화이다.

### 1

인민! 참으로 위대한 말이다.

세상에 이 고귀한 이름, 이 성스러운 모숨에 닿아 소리를 노예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것은 없으리라.

우리 당의 모습은 따로 있지 않다.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이 훌륭한 자식들의 모습에 비견되듯이 위대한 우리 당의 모습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모습에 어울린다.

인민을 보면 모든 것이 보인다. 우리 당이 높이 든 자주와 선군의 총대에도, 10월의 창공에 높이 날리는 우리 당의 붉은 당기에도 인민이 보인다. 통고고음에 오직 하나 조선로동당이 떨친 백색배치에도, 천만인 인건 그 따듯한 어머니의 옷자락에도 인민이 있고 우리 당이 펼치는 눈부신 광파 모든 리상에 인민, 인민이 있다.

어찌하여 우리 당은 오직 인민의 모습에 있어서만 그 거룩한 영상을 우러러볼 수 있고 과연 무엇으로 하여 70년의 장구한 행로는 물론 이 10월의 영광에도 인민이 라는 이름이 가득차 있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혁명은 하늘의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다.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우리 당을 받들고 응원하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한다.》

당에 있어 인민은 태어난 고향이고 존망이 달려있는 운명의 피줄이며 유일하게 지닐 수 있는 영원한 힘이다. 당이 항도의 빛 발이라면 인민은 그 무궁한 지혜의 저수지이고 당이 혁명의 기관차라면 인민은 그 동력이다. 당이 든든한 거목이라면 인민은 그 것이 뿌리라고 신 땅과 같다.

세상에 없는 길이였다. 누가 한 번 생각해 봤고 누가 한 걸음 짚어본적도 없는 생소한 길,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며 가야 하는 불가능과 미증유의 역전민러였다. 대양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과 결판은 내교 죽을 보듯 다한 시련의 큰 산들을 부셔버리면서 전쟁과 재파미우에 길을 내고 고난의 눈보라속에 그 길을 열어서 70성립이다.

과연 누구였는가. 이 백설봉굴의 당을 받들어 그 뜻과 슬기가 되어주고 그의 고마운 조연자, 미더운 방조자가 되었던 70년의 주인공은 누구였는가.

그 이름은 인민이고 그 심장은 일련단심이다.

기적해야 창건전지 4년 8개월 남짓하였. 이런 당에 있어 공화에 들어간 전정은 정말 그것으로 당도 공화국도 단명의 존재로 막을 내릴 수도 있는 판가리결정이었다. 그렇다면 그 시각에 우리 당과 공화국은 무엇에 의지했는가. 데레노 땅, 비행기의 수항이었던가. 아니면 그 누구의 지지나 원조였는가. 아니었다.

전쟁의 가장 엄酷的했던 1950년의 그 10월과 11월, 어떤 비겁쟁이들은 이에는 압박장을 권하여 한다고 하고 국가의 요격에서 탄포를 무너뜨리는 제살살자 찾아가려 했던 바로 그때, 우리 수형님께서 혁명의 변절자는 우리와 함께 있을 자리가 없다. 나가지라 추상같이 쫓겨서 버려 나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있을것입니다라고 엄격히 선언하시고 강철의 신념은 어디에 뿌리박았었던가.

있을 수 없는 유정의 그 가을밤 묘연시된 겁질한 아들을 놓고 부장하게 둘러앉은 한 밤과 젊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찰떡처럼 울림이었다. 시시각각 신념이 판가리되던 그 슬막하던 10월 어느 고개길에서 김일성장군을 찾아가야 살길이고 죽을 우리와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소라고 대담했던 범동농민의 목소리였다. 영웅한 우리 병사들과 함께 그 소박한 인민이, 그 총구같은 민심의 채찍이 보충으로 원자탄을 이긴 세계전쟁사의 기적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다.

레사로온 나날에는 그치지 않고 소박했다. 그러나 광풍이 불어오면 역센 산악으로 일어서고 원수가 달려들면 무서운 철벽이

되어 당을 지켰다. 당이 가장 힘들어할 때 바로 인민이 먼저 보이었고 인민이 제일 가까이 서주었고 인민이 가장 큰 힘을 느끼게 하였다. 이것이 인민의 진정한 얼굴이고 영원한 주소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전쟁에 결코 못지 않은,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엄酷하다고 할수 있는 역경은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단 당반혁명무리들의 공공연한 도전이었다. 당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할 때마다 불시에 머리를 쳐든 우리 당의 원수들을 누구보다 중요하고 용서치 않은 것은 언제나 평범한 우리 인민이었다.

아직은 살림이 어떠한 이름없는 농가의 수수한 할머니였지만 우리 수형님의 총카신 신상부터 첫눈에 알아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 수상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기지 총과놈들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고 아치지 않았는가.

인민의 그 지지는 일시적인 총동이나 그 어떤 신랄한 마음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위대한 우리 수형을 옹호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이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때 우리 강신사람들은 반당반혁명을 단속한 분노가 아니라 대고조로 징벌하였다. 그보다도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 우리 당에 가로막아서던 화를 만복의 폭으로 바꾸어드렸다. 이것이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깊은 감정이었고 당을 지키는 우리 인민의 방식이었다.

인민에게는 거짓과 위선, 아첨과 양군아 통치 않는다. 인민은 돈도 권력도 아닌 팔심이다. 땅과 같이 진실하고 어머니의 속마음과 같이 깊고 끝없이 깨끗한 것이 인민의 마음이다. 시정배들의 목소리는 오늘날의 바람향만 가라기지만 인민의 목소리는 천지가 흔들려 오직 태양만을 향해 울린다. 인민이 지지한다고 할 때, 인민이 굳게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있다. 그것은 증명이며 비평가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성시 승리로 도에 서있다 해도 그것이면 가슴이 뿌듯하고 죽음도 초월하는 힘을 가질 수 있고 어둠은 정막과 바람앞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인민은 다름이다. 어찌 보면 그것이 메사로 얻어갈 수 있지만 당을 대하는 인민의 감정은 언제나 남다른다. 수형의 가르침을 하나, 혁명활동보도에 대한 세 소식 하나에 정해 두. 받아들인 한두들의 물고기, 하나의 입사증을 놓고도 그 생각이 남다른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정이 무한히 깊고 뜨겁다.

실사 보지 못할 수 있어도 인민은 모든 것을 다 감수한다. 민심은 제일 맑은 현미경이고 제일 정제된 수증기이며 제일 정확한 청우계이다. 인민이라는 문을 열고 민심의 길은 바다를 헤쳐보아야 그물에 반짝이는 일련단심이라는 진주보석을 찾아다닐 수 있다.

이제는 수백수천년도 더 멀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말해야 하며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매일같이 다급한 보고들, 긴급대책안들이 쌓이던 1998년 1월의 고난의 그 밤 우리 장군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무거우셨다. 온밤 나라의 운명을 놓고 천만가지 생각을 다하신 우리 장군님께 반짝이는 하나의 불꽃이 떠오르셨다.

그들은 조국의 머나먼 북방에서 고난의 엄酷함을 그 누구보다 많이 겪고있는 강대민민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장군님의 심중의 고뇌를 더 깊이 느끼고있었고 이 어려운 때 어떻게 나서야 우리 길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 때나 그런 강대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쉼배방이 아니라 기름배낭을 지고 사회주의의 전야로 달려나가는 것으로써 6, 000여리 눈보라를 달려오신 우리 장군님께 커다란 힘과 용기를 드렸다. 그들은 폐배들의 자들을 일방기로 밀어버리겠다는, 식량보다도 일간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괴물은 대답으로 썩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겠는다는 조선의 민심을 그렇게 이끄러드렸다.

그때가 오죽이나 힘들었는가. 나라의 심정대로 했던 김철의 해관로 마지막을 씌우고 대용식물문제를 놓고 당원회의들에서는 비상회의들이 열리고 길가에서는 정정들마저 허거운 걸음을 옮기던 그 나날은 외우기조차 가슴이 찢어질때이다. 하나 인민은 깨끗했고 참으로 고마웠다. 혈육과 이웃들이 쓰러져나가고 피눈물을 삼킨듯 내안속에서 당에 대한 마음만은 한 티끌까지 없었다. 당에서 무엇을 하나 호소하면 지평이에 물음의 지지하면서도 그 어머니는 달려나갔고 장군님 이야기만 나오면 누구나 눈물이 글썽하여 모두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왜 쌀이 그리지 않고 왜 락이 그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 나라 인민들만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을 사생결단으로 지지해 나섰고 장군님의 진신길에서 행복이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누가 내 마음 플라준데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자하는 우리 장군님의 고난의 행군길의 주재자는 인민이 함께 부른 노래였다.

폭죽마저 나누어먹기 힘든 속에서도 전선에만은 광복을 한가득 실어보내던 이 나라 동민들, 근대에 나간 말이 집살림을 직정할까봐 우리 수형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있는 《라자구드편에서》의

몇대목을 편지에 깨알같이 적어보낸 너벚사의 어머니와 같이 총대를 지켜온 이 나라 넋들, 서해의 열적지역에서 적파의 해전이 터지자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고 병사들이 격전을 벌리는 해안가로 너너나도 달려나갔던 사람들, 이것이 고난의 력사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온 인민의 영상이었다.

일련단심, 과연 어떤 어긋수 없는 의무감이나 강한 의지력, 지극한 도덕리토란 이 위대한 세계를 다 열망할 수 있겠는가.

시커서 따라서는 인민의 길이 아니다. 인민은 선택하는 것이지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찾아야하는 것이면 죽음이 막아서도 그것을 믿고라도 가는 것이 인민의 길이이다.

우리 인민의 일련단심은 당과 수형의 심장에 스스로 이은 운명의 명줄이다. 명줄을 이으려는 생명의 요구보다 강한 것이 없다. 명줄이 아니라면 굶어 쓰러지면서도 총대를 사랑할 수 없었다. 명줄로 이은 일련단심이 아니라면 활아버지세대가 조여왔던 허리머를 아버지세대들이 또 조여매고 오늘날은 그 후대들이 또 조여매며 그렇게 깨끗이 걸어갈 수가 없다.

허리머, 정녕 불행이었던가. 몇몇한 행복이었던가. 무엇이기에 그것은 정녕 풀수 없었던가. 혁명이 한 세대에 끝나도 풀수 없으면, 원수들이 칼을 물고 달려들지 않았다면, 젊은기를 포기하고 남에게 굴복할 것이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주를 지켜야 몇몇이 살 수 있기에, 선군을 버리면 노가 되어야 하기에, 사회주의가 진정한 자기의 품이기에 그 첫걸음에서 맨 허리머를 어제도 오늘날도 인민은 풀수가 없었다. 그것은 용감한 인민의 향상이자 자기의 명줄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굶어 쓰러지면서도 그것만은 풀지 않았고 다음세대를 위해 번영의 요를 마비해놓았다고 허리머정신안은 후대들에게 유산처럼 남겨두었다.

70년은 천지개혁을 수십수백번이나 일으키는 세대로, 이 땅도 많은 것이 달려져 있었다. 세상은 떨치고 강산을 울리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젊은 모습은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거리, 가정에서 볼 수 없다. 그러나 달려져 있는, 갈수록 더욱 새겨져 호르는 인민의 생흔법칙이다. 그것은 태양을 지켜온다는 세대의 명줄이다.

우리의 평은 이 비방물에도 치달았던 지난 8월, 사회주의의 우리 세상을 강타하고 70년의 성스러운 10월밖에 때려왔던 원수들의 정역야망이 어떻게 소리를 잃어 버려나갔는가. 결코 총포가 마구신 분개선에서가 아니었다. 무진각강한 때두산총대의 위력과 함께 바로 천재들이 폭발한 인민의 힘이었다. 당중앙을 용위하여 일선성명박만 때두산기술에 단련연계를 높이 강고 삼켜버려 드르릉 울리게 터뜨린 청년장군의 최성이 전쟁에 대한 조선의 진짜 대담이었다.

그 중언했던 나날엔 70년의 인민을 마지막으로 검증하려는 듯 또 다른 시련이 들이닥쳤다. 조국의 최북단에 무겁게 버티고 고난의 그 밤 우리 장군님께서 정말 마음이 무거우셨다. 온밤 나라의 운명을 놓고 천만가지 생각을 다하신 우리 장군님께 반짝이는 하나의 불꽃이 떠오르셨다.

그들은 조국의 머나먼 북방에서 고난의 엄酷함을 그 누구보다 많이 겪고있는 강대민민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장군님의 심중의 고뇌를 더 깊이 느끼고있었고 이 어려운 때 어떻게 나서야 우리 길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 때나 그런 강대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쉼배방이 아니라 기름배낭을 지고 사회주의의 전야로 달려나가는 것으로써 6, 000여리 눈보라를 달려오신 우리 장군님께 커다란 힘과 용기를 드렸다. 그들은 폐배들의 자들을 일방기로 밀어버리겠다는, 식량보다도 일간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괴물은 대답으로 썩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겠는다는 조선의 민심을 그렇게 이끄러드렸다.

그때가 오죽이나 힘들었는가. 나라의 심정대로 했던 김철의 해관로 마지막을 씌우고 대용식물문제를 놓고 당원회의들에서는 비상회의들이 열리고 길가에서는 정정들마저 허거운 걸음을 옮기던 그 나날은 외우기조차 가슴이 찢어질때이다. 하나 인민은 깨끗했고 참으로 고마웠다. 혈육과 이웃들이 쓰러져나가고 피눈물을 삼킨듯 내안속에서 당에 대한 마음만은 한 티끌까지 없었다. 당에서 무엇을 하나 호소하면 지평이에 물음의 지지하면서도 그 어머니는 달려나갔고 장군님 이야기만 나오면 누구나 눈물이 글썽하여 모두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왜 쌀이 그리지 않고 왜 락이 그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 나라 인민들만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을 사생결단으로 지지해 나섰고 장군님의 진신길에서 행복이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누가 내 마음 플라준데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자하는 우리 장군님의 고난의 행군길의 주재자는 인민이 함께 부른 노래였다.

폭죽마저 나누어먹기 힘든 속에서도 전선에만은 광복을 한가득 실어보내던 이 나라 동민들, 근대에 나간 말이 집살림을 직정할까봐 우리 수형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있는 《라자구드편에서》의

몇대목을 편지에 깨알같이 적어보낸 너벚사의 어머니와 같이 총대를 지켜온 이 나라 넋들, 서해의 열적지역에서 적파의 해전이 터지자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고 병사들이 격전을 벌리는 해안가로 너너나도 달려나갔던 사람들, 이것이 고난의 력사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온 인민의 영상이었다.

일련단심, 과연 어떤 어긋수 없는 의무감이나 강한 의지력, 지극한 도덕리토란 이 위대한 세계를 다 열망할 수 있겠는가.

시커서 따라서는 인민의 길이 아니다. 인민은 선택하는 것이지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찾아야하는 것이면 죽음이 막아서도 그것을 믿고라도 가는 것이 인민의 길이이다.

우리 인민의 일련단심은 당과 수형의 심장에 스스로 이은 운명의 명줄이다. 명줄을 이으려는 생명의 요구보다 강한 것이 없다. 명줄이 아니라면 굶어 쓰러지면서도 총대를 사랑할 수 없었다. 명줄로 이은 일련단심이 아니라면 활아버지세대가 조여왔던 허리머를 아버지세대들이 또 조여매고 오늘날은 그 후대들이 또 조여매며 그렇게 깨끗이 걸어갈 수가 없다.

허리머, 정녕 불행이었던가. 몇몇한 행복이었던가. 무엇이기에 그것은 정녕 풀수 없었던가. 혁명이 한 세대에 끝나도 풀수 없으면, 원수들이 칼을 물고 달려들지 않았다면, 젊은기를 포기하고 남에게 굴복할 것이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주를 지켜야 몇몇이 살 수 있기에, 선군을 버리면 노가 되어야 하기에, 사회주의가 진정한 자기의 품이기에 그 첫걸음에서 맨 허리머를 어제도 오늘날도 인민은 풀수가 없었다. 그것은 용감한 인민의 향상이자 자기의 명줄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굶어 쓰러지면서도 그것만은 풀지 않았고 다음세대를 위해 번영의 요를 마비해놓았다고 허리머정신안은 후대들에게 유산처럼 남겨두었다.

무한한 정에 이은 삶의 명줄이다. 인민의 심장을 열여준 그 뜻, 인민의 명줄을 이어온 그 정은 바로 위대한 태양의 조선로동당이 세운 뜻이며 풀어준 정이다.

우리 수형님, 첫 세대 인민으로부터 대를 이어오며 가슴속에 안고 산 이 한없이 자애로운 부름으로부터 시작된다. 망국노의 헛발과 망이진 몸매 비단웃을 입혀 사회주의 새 집의 주인으로 앉혀주시고 지게와 소달구지밖에 모르던 사람들의 손에 천리마의 고삐를 쥐여주시었다. 구겨지고 찢겨지고 다 버려졌던 인민이라는 그 애달픈 부름을 위대한 조국의 국호와 강대한 우리 군대의 이름에 눈부시게 달아주시고 전체 인민을 사랑하는 마르코시 당의 당기에 두뿔이 새겨주신 우리 수형님입니다. 인민이 가슴에 품고있는 뜻이 우리 수형님의 뜻이었고 인민이 유구한 세월 목마르게 찾았던, 진정으로 가고싶은 길이 바로 수형님 열여주신 길이었고 우리 당이 이끌어 온 길이였다.

자주의 길이 왜 힘들고 선군이 얼마나 값비싼것이, 사회주의가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 몰라서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줄 수 없기에 우리 장군님 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준데도 그토록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제일로 사랑하신것이고 그리고 힘없이 건신길을 달리시었던것이다. 한발의 잠바웃과 보폭이 인 아전술음으로 강행군한생을 사시었고 위대한 생애의 최후도 이른바침늘보라길을 달리는 별처럼 인민을 마지막으로 부르시게 되게 울리는 기적소리와 함께 심장의 고통을 멈추신 우리 장군님, 장군님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도 고생만 많이 하시다가 가시었던 때에도 힘이 쏟아내는데 그 눈물, 아마도 인민의 눈물만큼 사투리는 정경은 없을것이다. 지켜주시고 그 것이 인민이, 쏟아진 그 정이 어떤것인지 인민은 세월이 갔어도 그 지지 않는 눈물로 다 담고있었다.

10월은 인민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10월, 그날도 이상한 일치인듯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한해전의 10월이었다. 오로지 고생은 인민에게 한시바며 락을 주시며 이제 더는 길에서는 안되는 그 초인간적인 걸음으로 오히려 거느려오며 다 강행군의 속도를 높여가던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동해에서 대서양 연이어가 성공했다는 보고와 함께 수천리 확산의 바다에서 보내온 10월kg이나 되는 조선의 첫 언어를 보게 되셨다.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제기물을 드시면서 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에게 연어를 맞보게 할 수 있었는가고 그리고 많이 오셨어온 것이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시고 연이어야에 성공하면 자신에게 걸어서라도 확산에 가보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리고 버신 연어였다.

번이 나는 해에는 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고 그리고 감바시였던 우리 장군님, 이제는 또 대서양연어가 조선의 동해에서 자라게 된 그 경사앞에 얼마나 감격하시었는가고. 동해의 향기가 물론 풍기는 그 진귀한 언어를 보고 또 보시던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언어를 번역 들어 울리고 세계를 울 수 있는것이라면 하늘에서 이제는 언어를 먹게 되었다고 웨치고 싶다고 쓰피계 하시었다.

꿈이 쓰피되면서 그렇게도 강직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이 연어와 같은 고급음식을 못 먹으면 어떠하리란 인민에게 무엇이 위대한 꿈을 울 수 있는것이라면 하늘에서 별을 따고 돌우에 꽃을 피워서라도 다 가져다주시려면 소원이 얼마나 사투처게되었는지 이런 눈물겨운 화복을 벽사에 남기시었으랴.

인민에게 이런 진정어린 친다. 그런 진정어린 사랑이 큰 신이었던 것일거니와 리도 지적으로 보일것이다. 흔히 퍼보다 진한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퍼보다 진한것이었다. 바로 정이다. 참된 뜻은 죽음보다 강하고 고결한 정은 퍼보다 진하다. 퍼를 나는 혈육보다 뜻과 정을 나는 사람들의 판가도 강하고 진하다.

우리 원수님!

사투지는 날마다 뛰쳐나가 병사들과 인민들이 그이를 목매어 부르고 가슴으로 파도를 밀며 한걸음한걸음 따라신다. 어디 가나 물결이 떠지듯 쏟아져 떨어지고 안기는 인민이다. 아이들도 안기고 산골마을어린들도 안기며 로병들도 청년들도 안기고 과학자, 체육인, 로동자, 농민들도 다 그들의 품에 감겨들며 그들의 두팔을 부여잡고 사투치게 안겨든다. 가시는 곳, 만나는 순간마다 눈물에서 맺은 얼굴들, 손을 흔들고 발을 꾸르며 환호의 거센 용암이 솟는다. 또 반흔의 태양같은신분, 우리 원수님들 모신 시대에 화년처럼 뇌리가 막힌 인민의 영상이었다. 풀어내는데 파와 박쳐드는것은 그 뜻이 다르고 그 정이다.

인민은 고이의 심장이다. 그렇게 가슴에 열렬히 간직하시고 그것으로 뜨겁게 숨결을 잇고 사투치게 내가 배가 부르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것은 인민의 믿음이다. 인민의 믿음이 끊어지면 내 생명의 피줄이 끊어지는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것이라고 그렇게도 불덩

이같은 심중을 떠놓으신 우리의 원수님 아니시던가.

참으로 류다분분이다. 피눈물의 생는 길에서 찍으신 고이의 첫걸음은 인민최우선, 인민절대주의의 간곡한 당부로 시작되어 하루, 한달, 한해 또 몇해 고이의 정은 인민의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제일 멀고 외진 곳, 제일 아픔이 크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 누구보다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흘러들었다.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설움이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셨다. 문명의 새 거리, 궁궐같은 새 집들, 현대화된 표준농촌에 로동자, 농민들을 먼저 앉혀주시고 과학자, 교육자들이 그 첫 주인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정치적이지나 명도자의 의무이기 전에 자신의 망심이고 타고난 천품이다. 혁명을 위해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혁명이 있고 당을 위해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당이 있다는 것이다.

이 뜻이 너무도 가슴에 사무쳐 달리는 령자의 차장으로 흘러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도, 비행기로 조국의 하늘을 날려 거리와 마을들을 굽어보실 때에도 인민에 대한 비할수 없는 애정을 쏟으시는 것이다. 깊은 밤 산같이 밀려오는 피로에 잠긴 눈을 감으시는 특유의 품속에서조차 인민을 의식하신다. 인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한한 애정과 든든한 힘이 솟는, 심장을 사로잡는 인민을 떠올리신다. 그 정은 그것을 주어야만 행복을 느끼는 정이고 그것을 줄수만 있다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시는 그런 정, 한발 쏟으시면 끝이 없는 영원한 정이다.

한순간엔 흐트러지면 백쟁명의 참혹속에 사정없이 밀려들어갈 수 있던 8월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조수초호전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계셨다. 바로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시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비상작전이였다. 원수들을 징벌하기 위한 중요의 전쟁과 인민을 행복의 보급자리에 앉혀주기 위한 사랑의 《전쟁》이 동시에 부딪치며 흘러간 그 격동의 낮과 밤들.

그이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생각하시었다. 폐허가 된 땅에 무릎도흔과 같은 세 도시를 세우기 위한 인민군대의 초음속건설대진을 빨리도록 해주시고도 도저히 잠을 이룰수 없으시어 수천리를 달려 라선 땅을 찾아오신 우리 원수님입니다. 수수한 인민을 신속으로 출원지달리는 현장의 구성구석을 돌아다니시고 보물배스의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어 점심식사도 다 잊으시며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피해를 가시는 일이 아니라 인민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투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사투이였다. 인민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정과 믿음이 전쟁도, 대자연의 광만도 다 휘어잡아 인민의 웃음을 지켰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인민은 또 한번 그이 없이 못할 이라는 심장의 때를 체험했고 그이와 일련단심 운명의 명줄을 또 한번 굳게 이었다. 그이께서는 이 모든것이 메사품과 보물소리를 들으시어 우리 인민에게는 너무도 눈물겹고 무한한 행복이어서 민심은 세계가 되었다. 인민을 품어안는 뜻에서 심장이 뛰어들어 뜨거우시고 인민을 보살피는 전쟁에서 그 마음과 감정이 류다르신 우리 원수님의 그 자애로운 모습,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 헤이릴수 없는 무수한 일화들은 이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만복의 사진으로 찍혀져있으며 불멸의 금언들로 굳어졌다.

이제 몇달이면 피눈물의 12월로부터 4년 4. 우리 혁명의 장구한 흐름에서 순간과 같은 나날이지만 일련단심의 력사에서는 새로운 한 세대, 한 시대의 탄생과 마멸되는 세월이었다. 우리 원수님처럼 달려가는 민심의 물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일련단심의 열기는 낮과 밤, 하늘과 땅과 바다, 세 사람들의 생활속 모든 시공간속에 가득 차넘친 조선의 숨결이고 흐르는 공기이며 살아있는 생명 그자체였다.

《우리 장군님을 그리워하고 우리 원수님을 그리워하면 불가늠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장에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어느때에도 생각지 못하는 무서운 힘으로 나타납니다.》

로동당시대의 참된 애국자로 온 나라에 알려진 박동공공무의 이 진정의 목소리처럼 그리움이어달라 일련단심의 용암이 불어올린 민심의 화산분출이 이 나라 정신력의 최정이었다.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자 기적을 낳는 열쇠이다. 기다리는 꿈이고 매일같이 씹사는 무한한 행복이며 누구나 있고 사는 삶의 기쁨이었다.

장천방의 천지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의 경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게 되고 전략적수항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쩌하여 우리 당의 장한 백색사투는 조국 멀리 추구건장에서 《가리라 때두산으로》 노래를 부르며 최고사령관의 백색산전법으로 우리

의 국가를 세계의 하늘높이 올려놓았다. 그리움이다. 사무치는 정의 불길이다. 백두의 붉은기를 영원한 조선의 넓고더 높이 휘날리시며 선군의 총대로 우리의 푸른 하늘을 지켜주시는분, 인민의 모든 꿈 꽃피우시리 이 땅의 세월도 모자라 잠파 휴식을 잊으시고 힘찬 령, 바다길도 모자라 하늘길을 달리시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자나깨나 그이만을 생각하고 낮이나 밤이나 그이만을 목매어 부르며 달려가시는 나라 민심의 산악들은 파도의 굽이침이다.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란 우리는 지구도 온다!

이것이 10월의 명마루에서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떠치는 천산정장의 대담창이다.

《조선혁명은 하늘의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다.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우리 당을 받들고 응원하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한다.》

인민! 참으로 위대한 말이다.

세상에 이 고귀한 이름, 이 성스러운 모숨에 닿아 소리를 노예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것은 없으리라.

우리 당의 모습은 따로 있지 않다.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이 훌륭한 자식들의 모습에 비견되듯이 위대한 우리 당의 모습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모습에 어울린다.

인민을 보면 모든 것이 보인다. 우리 당이 높이 든 자주와 선군의 총대에도, 10월의 창공에 높이 날리는 우리 당의 붉은 당기에도 인민이 보인다. 통고고음에 오직 하나 조선로동당이 떨친 백색배치에도, 천만인 인건 그 따듯한 어머니의 옷자락에도 인민이 있고 우리 당이 펼치는 눈부신 광파 모든 리상에 인민, 인민이 있다.

어찌하여 우리 당은 오직 인민의 모습에 있어서만 그 거룩한 영상을 우러러볼 수 있고 과연 무엇으로 하여 70년의 장구한 행로는 물론 이 10월의 영광에도 인민이 라는 이름이 가득차 있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혁명은 하늘의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다.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우리 당을 받들고 응원하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한다.》

이제는 수백수천년도 더 멀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말해야 하며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매일같이 다급한 보고들, 긴급대책안들이 쌓이던 1998년 1월의 고난의 그 밤 우리 장군님께서 정말 마음이 무거우셨다. 온밤 나라의 운명을 놓고 천만가지 생각을 다하신 우리 장군님께 반짝이는 하나의 불꽃이 떠오르셨다.

그들은 조국의 머나먼 북방에서 고난의 엄酷함을 그 누구보다 많이 겪고있는 강대민민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장군님의 심중의 고뇌를 더 깊이 느끼고있었고 이 어려운 때 어떻게 나서야 우리 길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 때나 그런 강대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쉼배방이 아니라 기름배낭을 지고 사회주의의 전야로 달려나가는 것으로써 6, 000여리 눈보라를 달려오신 우리 장군님께 커다란 힘과 용기를 드렸다. 그들은 폐배들의 자들을 일방기로 밀어버리겠다는, 식량보다도 일간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괴물은 대답으로 썩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겠는다는 조선의 민심을 그렇게 이끄러드렸다.

그때가 오죽이나 힘들었는가. 나라의 심정대로 했던 김철의 해관로 마지막을 씌우고 대용식물문제를 놓고 당원회의들에서는 비상회의들이 열리고 길가에서는 정정들마저 허거운 걸음을 옮기던 그 나날은 외우기조차 가슴이 찢어질때이다. 하나 인민은 깨끗했고 참으로 고마웠다. 혈육과 이웃들이 쓰러져나가고 피눈물을 삼킨듯 내안속에서 당에 대한 마음만은 한 티끌까지 없었다. 당에서 무엇을 하나 호소하면 지평이에 물음의 지지하면서도 그 어머니는 달려나갔고 장군님 이야기만 나오면 누구나 눈물이 글썽하여 모두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왜 쌀이 그리지 않고 왜 락이 그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 나라 인민들만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을 사생결단으로 지지해 나섰고 장군님의 진신길에서 행복이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누가 내 마음 플라준데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자하는 우리 장군님의 고난의 행군길의 주재자는 인민이 함께 부른 노래였다.

폭죽마저 나누어먹기 힘든 속에서도 전선에만은 광복을 한가득 실어보내던 이 나라 동민들, 근대에 나간 말이 집살림을 직정할까봐 우리 수형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있는 《라자구드편에서》의

몇대목을 편지에 깨알같이 적어보낸 너벚사의 어머니와 같이 총대를 지켜온 이 나라 넋들, 서해의 열적지역에서 적파의 해전이 터지자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고 병사들이 격전을 벌리는 해안가로 너너나도 달려나갔던 사람들, 이것이 고난의 력사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온 인민의 영상이었다.

일련단심, 과연 어떤 어긋수 없는 의무감이나 강한 의지력, 지극한 도덕리토란 이 위대한 세계를 다 열망할 수 있겠는가.

시커서 따라서는 인민의 길이 아니다. 인민은 선택하는 것이지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찾아야하는 것이면 죽음이 막아서도 그것을 믿고라도 가는 것이 인민의 길이이다.

우리 인민의 일련단심은 당과 수형의 심장에 스스로 이은 운명의 명줄이다. 명줄을 이으려는 생명의 요구보다 강한 것이 없다. 명줄이 아니라면 굶어 쓰러지면서도 총대를 사랑할 수 없었다. 명줄로 이은 일련단심이 아니라면 활아버지세대가 조여왔던 허리머를 아버지세대들이 또 조여매고 오늘날은 그 후대들이 또 조여매며 그렇게 깨끗이 걸어갈 수가 없다.

허리머, 정녕 불행이었던가. 몇몇한 행복이었던가. 무엇이기에 그것은 정녕 풀수 없었던가. 혁명이 한 세대에 끝나도 풀수 없으면, 원수들이 칼을 물고 달려들지 않았다면, 젊은기를 포기하고 남에게 굴복할 것이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주를 지켜야 몇몇이 살 수 있기에, 선군을 버리면 노가 되어야 하기에, 사회주의가 진정한 자기의 품이기에 그 첫걸음에서 맨 허리머를 어제도 오늘날도 인민은 풀수가 없었다. 그것은 용감한 인민의 향상이자 자기의 명줄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굶어 쓰러지면서도 그것만은 풀지 않았고 다음세대를 위해 번영의 요를 마비해놓았다고 허리머정신안은 후대들에게 유산처럼 남겨두었다.

무한한 정에 이은 삶의 명줄이다. 인민의 심장을 열여준 그 뜻, 인민의 명줄을 이어온 그 정은 바로 위대한 태양의 조선로동당이 세운 뜻이며 풀어준 정이다.

우리 수형님, 첫 세대 인민으로부터 대를 이어오며 가슴속에 안고 산 이 한없이 자애로운 부름으로부터 시작된다. 망국노의 헛발과 망이진 몸매 비단웃을 입혀 사회주의 새 집의 주인으로 앉혀주시고 지게와 소달구지밖에 모르던 사람들의 손에 천리마의 고삐를 쥐여주시었다. 구겨지고 찢겨지고 다 버려졌던 인민이라는 그 애달픈 부름을 위대한 조국의 국호와 강대한 우리 군대의 이름에 눈부시게 달아주시고 전체 인민을 사랑하는 마르코시 당의 당기에 두뿔이 새겨주신 우리 수형님입니다. 인민이 가슴에 품고있는 뜻이 우리 수형님의 뜻이었고 인민이 유구한 세월 목마르게 찾았던, 진정으로 가고싶은 길이 바로 수형님 열여주신 길이었고 우리 당이 이끌어 온 길이였다.

자주의 길이 왜 힘들고 선군이 얼마나 값비싼것이, 사회주의가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 몰라서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줄 수 없기에 우리 장군님 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준데도 그토록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제일로 사랑하신것이고 그리고 힘없이 건신길을 달리시었던것이다. 한발의 잠바웃과 보폭이 인 아전술음으로 강행군한생을 사시었고 위대한 생애의 최후도 이른바침늘보라길을 달리는 별처럼 인민을 마지막으로 부르시게 되게 울리는 기적소리와 함께 심장의 고통을 멈추신 우리 장군님, 장군님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도 고생만 많이 하시다가 가시었던 때에도 힘이 쏟아내는데 그 눈물, 아마도 인민의 눈물만큼 사투리는 정경은 없을것이다. 지켜주시고 그 것이 인민이, 쏟아진 그 정이 어떤것인지 인민은 세월이 갔어도 그 지지 않는 눈물로 다 담고있었다.

10월은 인민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10월, 그날도 이상한 일치인듯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한해전의 10월이었다. 오로지 고생은 인민에게 한시바며 락을 주시며 이제 더는 길에서는 안되는 그 초인간적인 걸음으로 오히려 거느려오며 다 강행군의 속도를 높여가던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동해에서 대서양 연이어가 성공했다는 보고와 함께 수천리 확산의 바다에서 보내온 10월kg이나 되는 조선의 첫 언어를 보게 되셨다.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제기물을 드시면서 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에게 연어를 맞보게 할 수 있었는가고 그리고 많이 오셨어온 것이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시고 연이어야에 성공하면 자신에게 걸어서라도 확산에 가보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리고 버신 연어였다.

번이 나는 해에는 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고 그리고 감바시였던 우리 장군님, 이제는 또 대서양연어가 조선의 동해에서 자라게 된 그 경사앞에 얼마나 감격하시었는가고. 동해의 향기가 물론 풍기는 그 진귀한 언어를 보고 또 보시던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언어를 번역 들어 울리고 세계를 울 수 있는것이라면 하늘에서 이제는 언어를 먹게 되었다고 웨치고 싶다고 쓰피계 하시었다.

꿈이 쓰피되면서 그렇게도 강직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이 연어와 같은 고급음식을 못 먹으면 어떠하리란 인민에게 무엇이 위대한 꿈을 울 수 있는것이라면 하늘에서 별을 따고 돌우에 꽃을 피워서라도 다 가져다주시려면 소원이 얼마나 사투처게되었는지 이런 눈물겨운 화복을 벽사에 남기시었으랴.

인민에게 이런 진정어린 친다. 그런 진정어린 사랑이 큰 신이었던 것일거니와 리도 지적으로 보일것이다. 흔히 퍼보다 진한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퍼보다 진한것이었다. 바로 정이다. 참된 뜻은 죽음보다 강하고 고결한 정은 퍼보다 진하다. 퍼를 나는 혈육보다 뜻과 정을 나는 사람들의 판가도 강하고 진하다.

우리 원수님!

사투지는 날마다 뛰쳐나가 병사들과 인민들이 그이를 목매어 부르고 가슴으로 파도를 밀며 한걸음한걸음 따라신다. 어디 가나 물결이 떠지듯 쏟아져 떨어지고 안기는 인민이다. 아이들도 안기고 산골마을어린들도 안기며 로병들도 청년들도 안기고 과학자, 체육인, 로동자, 농민들도 다 그들의 품에 감겨들며 그들의 두팔을 부여잡고 사투치게 안겨든다. 가시는 곳, 만나는 순간마다 눈물에서 맺은 얼굴들, 손을 흔들고 발을 꾸르며 환호의 거센 용암이 솟는다. 또 반흔의 태양같은신분, 우리 원수님들 모신 시대에 화년처럼 뇌리가 막힌 인민의 영상이었다. 풀어내는데 파와 박쳐드는것은 그 뜻이 다르고 그 정이다.

인민은 고이의 심장이다. 그렇게 가슴에 열렬히 간직하시고 그것으로 뜨겁게 숨결을 잇고 사투치게 내가 배가 부르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것은 인민의 믿음이다. 인민의 믿음이 끊어지면 내 생명의 피줄이 끊어지는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것이라고 그렇게도 불덩

동 태 관







# 사회주의만복이 꽃피는 땅에 울려 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 당이며 그대가 언제나 곁에 있기에

### 라선시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을 두고

고난과 시련속에서 검증된 진리만큼 값비싼 재부는 이 세상에 없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서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이르러진 진리가 생명과도 같이 간직되어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격랑속에서 그 진리를 다시한번 뜨겁게 새겨안은 라선시인민들은 때 없이 심장으로 되뇌이곤 한다.

당이며! 그대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에.

그럼 때면 몸은 비록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은 혁명의 수도 평양과 멀리 떨어진 조국의 한 끝이 있어도 당중앙위원회에서 살고있으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는 위대한 어머니의 손길에 언제나 자신들의 곁에 있다는 숨겨진 자국이 눈물겹게 새겨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우어야 합니다.》

지난 5일 라선시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장소들은 격정의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현대적인 문화공품을 비롯하여 부엌재간과 식료품, 옷류, 북방의 날씨까지 헤아려 보내주신 솜씨...

선진사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대한 보도가 울려 퍼지자 삼시에 그 주위로 모여든 인민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목청껏 퍼지며 방송현장에 다사한 번, 다시한번 더 들러달라고 부탁했다.

한번, 두번 반복될수록 보도 내용을 읽어주는 방송원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들었고 귀담아 듣고 또 듣는 사람들의 흐느낌도 더욱 세차했다.

방송선진사의 확성기에서 커림처럼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분명 뜻밖의 불행에 당한 자식들에게 힘을 내라고, 어머니가 곁에 있으니 용기를 내어 일어 사라고 고무해주는 우리 당의 목소리였다.

그들이 발원함을 지고있을 때 주신 사랑이 적으셨듯 사랑하는 인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우리 원수님의 그 마음을.

가을바람에 나무잎이 날려도 한지에 나앉은 라선지방의 인민들을 생각하시고 응징하게 일떠신 만년대대의 언저를 보시면서도 인민들에게 인격을 살림집을 생각하신 우리 원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민, 삼척침은 자식들을 찾아 하하릴, 배를 달려 라선 땅으로 오실수록 누가 품에 선을 상상했랴.

휴먼지날리는 피해구역현장을 돌아보시며 관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 수재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 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인민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하여온 어머니당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다. 당은 언제나 인민의 곁에 있었다.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대명사-어머니! 천만민들의 마음속부름에 깃들여있는 진정은 과연 무엇인가.

얼마전 늦은저녁 구성공작기계공장 1가공직장 일군이 작업장상을 찾았을 때였다. 어머니가 노래소리가 조용히 들려와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 돌도 없는 나의 어머니 위대한 당의 품이여 이 몸 바쳐 그대 곁에 나는 영광스러라

축복받은 삶의 노래

두해전 불철도성년동맹 대대단 대대장 박성민동무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군 혁명로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그가 올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 주시고 《슬기롭고 싶었을 집안의 기거를 스스럼없이 더럽고 당을 밟고 따르는 좋은 청년입니다》

2013 4 10이라는 사랑이런 편지를 보내주시었던 것이다.

사실 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편지를 삼가 올리게 된다는 편지였다.

그해 2월 박성민동무는 뜻 깊은 평평성에서 즈음하여 영광스럽게도 김정일청년영예

다가가보니 백문규동무가 기대를 정비하며 부르는 노래였다. 이제 또 오늘도 한복색으로 맑은 주춧돌가공에서 숭신 모범을 보이고있는 성실한 노동자, 그가 요즘 자주 생각에 잠겨온 한탄하는 것을 일군은 알고있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은 그였다.

사실 그를 온 나라가 다 아는 로동혁신자로 떠밀어주고 이끌어준것은 어머니당이다.

아버지문제로 고민하는 딸 못할 사연도 헤아려 마음속 그늘까지 말끔히 가져주고 길을 헛들세라 걸음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준

어머니당, 그토록 바리던 마음속원도 헤아려 성스러운 당기공에 싸인아 우리 당대렬에 세워준 고마운 품, 그 품을 순간이나마 떠나 살수 있었을것인가, 백문규동무는 늘 이런 생각으로 50여년을 한직장, 한작업장에서 성실히 일해왔다. 그날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도 지니었다.

그날 백문규동무는 자기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는 일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충성을 다하렵니다.》

한 생 따 르 리

못했던 조선청년의 최고 영예인 김정일청년영예상을 받아안은 것이다.

그는 가슴속에 품는 걱정을 머릿지 않고서는 잠들수 없었다. 꽃밭에도 잠든 깊은 밤 그는 땅을 따라 한생 헌합 없이 한길만을 걸을 충정의 맹세를 목에 매어 부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취를 맡겨주었고 당원의 영예도 얻어주었다.

어머니당은 그가 주지않을 새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고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도록 걸음걸음 떠밀어주었다. 당의 그 믿음과 가슴에 안고 고는 나라애에 자기 집안 이 지는 죄를 조금이라도 짓고 싶지 않은 일군에 따라 열정을 다 바치려한다.

그러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조선청년의 최고 영예인 김정일청년영예상을 받아안은 것이다.

그는 가슴속에 품는 걱정을 머릿지 않고서는 잠들수 없었다. 꽃밭에도 잠든 깊은 밤 그는 땅을 따라 한생 헌합 없이 한길만을 걸을 충정의 맹세를 목에 매어 부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취를 맡겨주었고 당원의 영예도 얻어주었다.

어머니당은 그가 주지않을 새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고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도록 걸음걸음 떠밀어주었다. 당의 그 믿음과 가슴에 안고 고는 나라애에 자기 집안 이 지는 죄를 조금이라도 짓고 싶지 않은 일군에 따라 열정을 다 바치려한다.

그러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조선청년의 최고 영예인 김정일청년영예상을 받아안은 것이다.

## 인민이 더치는 걱정, 뜨거운 감사의 인사

##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들의 밝은 미래

**마을 사람들의 감탄**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경생태사업이 이어진 현지지도의 길우에는 여섯마리의 메새가 누르소로 된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수놓아져 있다.

새 조종관 안락리의 어느 날 시종관 안락리의 어느 농민의 집에 들리시었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장에 있는 몇마리의 메새를 출수 없었는가고 물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미처 알아본지 못한 그 농민은 여섯마리의 메새를 드리고 많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들게 되었다.

사실 그새는 위대한 수령님께 꼭 필요하진 않거나 낙지 낙지 못 한 이 집의 살림을 보태주시기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태는 조국의 불빛이 동태된 들은 그것을 지기는 애국자들이라고, 우리는 이런 동태된 들의 생활을 잘 보살피우어야 한다고 하시며 은은이던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은 나라 동태들들에 펼쳐진 광경, 그것은 어머니당만이

**관광마을녀인들이 흘린 눈물**

지난해 2.8혁명청년관광마을마다에 보기 드문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물고기들을 그득히 실은 대형화물차들이 꼬리를 끌고 달려와 집집마다에서 바다항기가 물건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랴.

《엄마, 저런 꼭 저마미에 달린 열매같아요.》

《그때, 열매란다. 당의 은정이 속속들이 맺혀진 사랑의 열매란다.》

바다면 잔에서 수천수만의 너넨들은 이런 뜨거운 격정을 안고 감사의 눈물로 두분씩이며 로동당단체를 마음속으로 위치고 또 꿰었다.

장 정 철

승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지난 3일 동해철승 승도원에 방문한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다.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앞두고 온갖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가슴안고 안은 소년단원들의 즐거운 야영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받는 소년단원들은 의단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한쪽의 그림자다.

풀없이 출몰하는 푸른 물결, 은모래밭에서는 백사장, 바다가에 펼쳐진 숲속이며 파도를 넘나드는 흰 깃발기둥, 그속을 거니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야영소의 건물들은 또 얼마나 희한한 동화세계를 펼쳐고있는가. 야영각의 천정조명등이 신비경의 달나라, 별나라세계로 이끌어가는듯하고 수족관의 동글수조에 다가가면 마치 바다속에 들어온듯 환상에 빠지게 한다.

국제친선소년회관의 극장벽

얼마나 재미있을까, 우린 얼마나 행복한가, 아버지, 어머니가 내 모습을 보았단다...

《꿈같은 야영의 나날이 또 하루 흘러간다.》

앞으로 난 무엇이 될까? 용감한 해병? 이글한 학자? 야영소의 모든것은 나에게 품은 꿈을 꾸게 한다. 난 꿈에 이를테야.

... 누구나 정한을 금치 못하는 승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하기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 승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울려 퍼지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것은 이 땅의 천안아들들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애국자, 파사로운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온 나라 아이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 더 밝고 장창할 새 조국의 메일을 알았거늘은 최후승리의 힘찬 구가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 과학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자랄할만 한 기지

**평양남새과학연구소**

남지나지하려는데 어느새 우리를 알아본 연구사는 이 남새가 바로 《작은 인삼》이라고 부르는 자족생육당무우라고 소개하였다.

연구사는 지금의 땅에 박혀보이지 않던 결과 속이 모두 자족성을 띠는 이 당무우의 사람의 영양에 중요한 카로틴 함량이 높고 맛이 특진이라고 하면서 《작은 인삼》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사각사각하고 맛이 좋은 자족생육당무우에는 카로틴은 비타민A, 비타민B2, 칼슘, 철 등 일반당무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뿐 아니라 자족성에 있어 특별히 많이 포함되어있는 안토시아닌 풍부해 들어있었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구내에 들어서니 첫 보기에 도 현대감이 나는 건물이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1시합장수경은실이었다.

소장 조남석동무는 계절이 따로 없는 이 현대적인 수경온실에서 오는 오이, 도마도, 고추 등 여러가지 남새들을 재배하고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이류남새 품종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한창이라고 하면서 온실안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온실에 들어서니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자 그야말로 남새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포기마다 주렁주렁 달린 오이며 도마도, 여러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재배한 푸르 푸르 싱싱한 남새들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려는 온실관리공들의 노력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였다.

락업이 지는 가을계절에 따스한 기운이 도는 온실안의 이채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흥그러워졌다.

관리공처는 이 수경온실에

과학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자랄할만 한 기지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구내에 들어서니 첫 보기에 도 현대감이 나는 건물이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1시합장수경은실이었다.

소장 조남석동무는 계절이 따로 없는 이 현대적인 수경온실에서 오는 오이, 도마도, 고추 등 여러가지 남새들을 재배하고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이류남새 품종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한창이라고 하면서 온실안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온실에 들어서니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자 그야말로 남새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포기마다 주렁주렁 달린 오이며 도마도, 여러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재배한 푸르 푸르 싱싱한 남새들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려는 온실관리공들의 노력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였다.

락업이 지는 가을계절에 따스한 기운이 도는 온실안의 이채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흥그러워졌다.

관리공처는 이 수경온실에

과학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자랄할만 한 기지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구내에 들어서니 첫 보기에 도 현대감이 나는 건물이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1시합장수경은실이었다.

소장 조남석동무는 계절이 따로 없는 이 현대적인 수경온실에서 오는 오이, 도마도, 고추 등 여러가지 남새들을 재배하고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이류남새 품종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한창이라고 하면서 온실안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온실에 들어서니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자 그야말로 남새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포기마다 주렁주렁 달린 오이며 도마도, 여러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재배한 푸르 푸르 싱싱한 남새들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려는 온실관리공들의 노력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였다.

락업이 지는 가을계절에 따스한 기운이 도는 온실안의 이채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흥그러워졌다.

관리공처는 이 수경온실에



남새 종류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잘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정 철



